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3.3.19(화)
통 일 부
[정세분석국]

● 대남동향

- 北 「조평통」 서기국, 3.18 우리 정부의 '유엔의 北 인권조사기구 설립 논의 동참'을 비난하며 "남조선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지대"라고 '주한 미군 범죄 및 사회문제(빈곤·실업·범죄증가 등)' 부각 선동 '백서' 발표 (3.18, 중통)
- '南 당국의 反北소동으로 남북 불가침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'고 왜곡 주장 및 '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쟁, 핵전쟁으로 화할 것' 이라고 지속 위협(3.18, 중통·노동신문/북남 불가침합의를 뒤집어엮은 장본인)
 - * 최근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관계자 등 對北 발언(北 잇달은 위협 등) 비난 및 '北의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 청와대는 산산이 박산나고 서울은 물론 南 전역이 재가루속에 잠기게 될 것' 위협 폭언(3.18, 노동신문/도발과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불바다로)
- 우리 軍의 미국과 '공동작전계획(北 지원·지휘세력 타격)' 작성 추진 공개는 "사실상 선전포고"라며 '한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'라고 비난(3.18, 중통·민주조선/매우 위험한 북침전쟁 도발계획)

● 대내동향

- 전국경공업대회, 3.18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연설 (3.19, 중통·중방·평방)
 - 최영림(보고)·김경희·김기남·문경덕·로두철·태종수 및 黨의 경공업관철에 앞장선 단위 일꾼들·노력혁신자들·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꾼 등 참석

- 김정일은 연설에서 '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 방향임.'
- 그런데 '지금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'며,
- 이의 심각한 문제로 '△원료·자재의 수입의존, △일꾼들의 사업부진에 대한 패배주의 및 수입병(돈벌 생각 우선), △ 오분열도식 일본새' 등으로,
- 현시기 경공업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'△인민소비품생산 획기적 증가, △경공업 부문 현대화·과학화, △일꾼들의 책임과 역할 증대(합리적 경영·기업전략 수립 등), △원료·자재 국산화, △과학자·기술자들 역할 증대' 등 명시.

* 전국경공업대회 대표들의 생일축하모임, 3.18 박봉주(黨 부장) 및 대회기간 생일을 맞은 대표 등 참가下 청류관에서 진행(3.19,중통)

- 現 정세 관련 '노동적위군 등 민간무력'은 "자위적 국방력의 기둥"이라며 "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전시분 위기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전투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"고 선동(3.18,중통·노동신문 사설/혁명적 민간무력의 전투적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)
- 제28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(3.12-15)에 출품(16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) 한 '원자힘 현미경(첨단 나노측정 및 조작기구)' 등 소개(3.18,중통)
- 포평혁명사적지 조성 이래 지난 40여 년간 800여만 명 참관(3.18,노동신문)

● 대외동향

- 現 한반도 정세를 '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 책임'으로 전가 및 '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對北 정책에 추종하는 조건에서 우리(北)의 선택은 보다 명백하게 되었다'고 주장(3.18,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미국은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)
- * 北 김을호(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)·리현길(평양 시민)도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(3.9) 등을 인용, "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미국이 선사한 것"이라고 주창(3.18,중통)

- * '키 리졸브·독수리 합동군사연습' 비난 및 '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기어이 승리,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 것' 호언(3.18, 중통/조선침략의 원흉 미제)
- 조영만 잠비아 駐在 北 대사, 3.13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(3.18, 중방)
- 중국 「全人代」 제12기 제1차 회의(3.5-17) 소식 및 中(신화통신)·러·美·日 통신·신문 등 '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' 3.17 보도(3.18, 평방·중통)

//끝//